

## 상선 승무원들의 건강관리 개선방안 연구

† 김 재 호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for Health Management of Seafares

† Jae-Ho Kim

†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Busan 606-080, Korea

**요 약** : 본 연구는 상선승무원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지식, 태도 그리고 실천행위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승무원들의 건강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중인 516명의 상선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국민건강 생활지침을 바탕으로 선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련 지식은 고연령자, 기혼자, 종교가 있는 자, 고위직급자, 승선경력이 많은 자가 높았으며, 건강관련 태도와 실천행위는 고연령자, 기혼자, 종교가 있는 자, 경력이 많은 자, 근무시간이 적은자에게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5$ ). 2)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 태도, 예방행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지식점수는  $4.24 \pm 0.35$ , 태도  $3.45 \pm 0.41$ , 예방행위  $3.39 \pm 0.22$ 의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3) 건강관리와 관련한 지식, 태도, 실천행위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순상관 관계( $r = 0.33 \sim 0.63$ )의 통계적 유의성 나타내었다( $p < 0.05$ ).

**핵심용어** : 선박승무원, 건강관리, 건강관리지식, 건강관리태도, 건강관리실천행위, 건강교육

**Abstract** :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among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 to health care and the actual health protective practices of seafarers was surveyed and analyzed in order to provide the management method for improving seafarers' health c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16 seafarers who took refresh training courses in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The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under the Guidelines for National Health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odified for studying seafarers' health stat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pack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older, married, religion believer, higher ranker, the man who have longer career have the higher degree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degree( $p < 0.05$ ). 2) The degree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are  $4.24 \pm 0.35$ ,  $3.45 \pm 0.41$ , and  $3.39 \pm 0.22$  in mean by 5-score scale, respectively. 3) The correlation among the degree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was significant( $r = 0.33 \sim 0.63$ ,  $p < 0.05$ ).

**Key words** : Seafarers', health management, Knowledge of health management, Attitude of health management, Practice behaviors of health management, Education of health

## 1. 서 론

선박승무원들은 선박의 운항에 따른 높은 수준의 소음과 동요, 한랭과 폭염, 기온, 기습 등의 변화가 큰 해상환경에서 생활하며, 장시간의 근무시간과 교대근무로 인해 항상성 유지와 생리적 부적응 등으로 신체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Ko and Kim, 2003; Lee and Leon, 2006; Jeon et al., 2006). 그리고 사회와 격리된 바다에서 생활함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제한, 기본 욕구의 억제, 단조로운 생활, 다국적 선원 혼승에 따른 문화충돌 등 스트레스 유발 인자가 많아 정신 건강유지에 어려움이 있다(Fugelli, 1980; Ha, 2001; Seo and Kim,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박승무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85%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불만족 요

인별 점수를 보면, 사고 질병 위험 75.3점, 건강관리의 어려움 68.8점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승선으로 인한 건강 수준은 승선 전에 비해 60% 이상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선박승무원들은 “건강한 삶”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다(Lim, 1994).

이와 같이 건강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선박 근로 환경으로 인해 젊은 선박승무원들이 승선을 기피하고 이직율의 증가로 인한 결과 선박승무원 노동력은 장·노령화되어 평균연령이 약 48세에 이른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5). 따라서 우리나라 선박승무원 인력 구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대책 중의 하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선박승무원들이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직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질병 예방과 건강관

† 교신저자 : 연희원, medjaeho@hanmail.net 051)620-5807

(주) 이 논문은 “상선 승무원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행위에 관한 조사”란 제목으로 “2012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2012.10.25-27, pp. 47-48)”에 발표되었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특 성	N	(%)
연 령		
≤29	62	12.2
30 - 39	87	16.9
40 - 49	165	32.0
≥50	201	38.9
결혼상태		
미 혼	169	32.7
기 혼	347	67.3
종 교		
없 다	217	42.2
있 다	298	57.8
학 력		
≤중 졸	73	14.2
고 졸	279	54.1
≥대 졸	164	31.7
계	516	100.0

Table 2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특 성	N	(%)
직 위		
선·기관장	224	43.5
해기사	257	49.8
부 원	35	6.7
선박크기(톤)		
≤500	145	28.1
501-3000	115	22.2
3001-10000	109	21.2
≥10000	147	28.5
항행구역		
외 항	287	55.6
내 항	229	44.4
선령(년)		
≤5	51	9.8
6-10	164	31.8
11-20	228	44.2
≥21	73	14.2
총 승선경력		
≤5	77	14.9
6 - 10	84	16.2
11 - 20	182	35.3
≥21	173	33.6
근무시간(주당)		
≤50	122	23.7
51-60	228	44.1
≥61	166	32.2
계	516	100.0

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수단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승무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각 나라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선박승무원들에 대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ILO, 1996; ILO·WHO, 1997; ILO, 2006; IMO·WHO,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상선 선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행위를 조사하여, 선박승무원들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수행되었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선원들의 건강관리 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조사대상자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선원 재교육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중인 선원과 현장 방문을 통해 설문과 면접이 가능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의 규모는 설문과 면접에 응답한 총 578명중 자료의 분석이 불가능한 응답 미비자 62명을 제외한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에서와 같이 연령은 40대가 32.0%, 50대가 38.9%였으나 20대는 12.2%를 보였으며, 결혼관계는 기혼 67.3%, 미혼 32.7%로 분포하였다, 종교는 '있다'가 57.8%의 분포를 보였고, 교육수준은 고졸 54.1%, 대졸이상 31.7%순으로 분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직무 특성은 Table 2에서와 같이 직위는 선·기관장이 43.5%, 1-3항기사인 해기사가 49.8%를 차지하였으며, 승선 선박크기는 1만톤 이상 28.5%, 5백톤 이하 28.1%순으로 차지하였다. 항행구역은 외항이 55.6% 내항이 44.4%로 분포하였고, 승선선박의 선령은 11-20년 사이가 44.2%로 가장 많았다. 선령은 11-20년이 44.2%로 가장 많고, 총 승선 경력은 21년 이상이 33.6%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주당 근무시간은 51-60시간 44.1% > 61시간 이상 32.2% > 50시간 이하 23.7%순으로 분포하였다.

###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국민건강생활지침(보건복지부, 2004)을 근거로 제작된 표준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선원에 적합하도록 직무특성 등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도구는 총 90개 문항으로 일반 및 직무 10문항, 지식 8문항, 태도 8문항, 그리고 실천행위는 8개 문항내 64개 문항을 세분하여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과 태도, 실천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7$ 였다.

### 2.3 자료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을 산출하였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행위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절대공정 5점, 절대부정에 1점을 부여한 후 산술평균, 표준편차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행위간의 관련성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검정은 유의수준 95%에서 실시하였다.

**Table 3**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degree about Health Management

분 류	Mean	SD
<b>지 식 항 목</b>		
청결.한 생활	4.60	1.20
음식섭취	3.89	0.62
예방접종과 건강진단	4.01	0.77
음주 및 흡연	4.03	0.70
규칙적 운동	4.02	0.71
일의 보람과 즐거운 마음	4.29	0.96
안전사고 예방	4.58	1.30
건강환경 조성	4.45	1.13
계	4.24	0.35
<b>태 도 항 목</b>		
청결.한 생활	3.79	0.64
음식섭취	3.34	0.49
예방접종과 건강진단	2.98	0.25
음주 및 흡연	3.03	0.30
규칙적 운동	3.21	0.40
일의 보람과 즐거운 마음	3.46	0.47
안전사고 예방	3.98	0.68
건강환경 조성	3.71	0.59
계	3.45	0.41
<b>실 천 항 목</b>		
청결.한 생활	3.50	0.56
음식섭취	3.15	0.45
예방접종과 건강진단	3.59	0.52
음주 및 흡연	2.92	0.71
규칙적 운동	3.49	0.54
일의 보람과 즐거운 마음	3.89	0.68
안전사고 예방	4.01	0.78
건강환경 조성	3.00	0.48
계	3.39	0.22

**2.4 연구 범주**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행위의 조사는 설문과 면접에 의한 단면적 연구조사의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주관성이 개입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조사결과와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원들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일반적

경향인 지식과 태도, 실천행위를 조사하여 선원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만족하여야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3. 조사결과 분석**

**3.1 건강관리 특성**

본 조사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항목별 평균점수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관리와 관련한 지식 항목의 평균은 4.24, 태도는 3.45, 실천행위는 3.39의 점수를 각각 보였으며, 각 항목별 조사에서 지식항목은 “청결한 생활” 4.60> “안전사고 예방” 4.58 > 건강환경 조성 4.45점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태도항목에 있어서는 안전사고예방 3.94> 청결한생활 3.79> 건강환경조성 3.71순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건강행위 실천행위 항목에서는 안전사고예방 4.01> 일의 보람과 즐거운 마음 3.89> 예방접종과 건강진단 3.59 순으로 실천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실천행위 점수가 지식과 태도 보다 낮은 것은 선행연구(Kang, 1992 ; Ki, 1985 ; Oh et al., 1996)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는데 이는 건강관리 지식을 습득하고 태도가 형성이 되어도 바로 실천행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Pender et al.(1990)과 Yoon(1990)은 건강에 대한 만족스러운 실천행위가 이행되지 못하는 것은 흡연이나 음주,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사 등 나쁜 생활습관에 익숙해져 올바른 건강행위 실천에는 관심이 부족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고정관념과 습관이 형성되어 바람직한 실천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생활양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이며(Park, 1992), 건강교육은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정확한 건강지식을 주고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관을 변화시켜(Ki, 1985; Kim, 1985; Kim and Jeon, 1996),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다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체계적인 건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2 건강관리의 지식, 태도, 실천행위에 대한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행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건강관리 태도와 실천행위에 있어서는 각각 50세 이상에서 3.60점과 3.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내어 저 연령에 비해 고 연령층이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형성과 실천행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바람직한 건강증진 행위를 더 많이 실천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2004; Oh et al., 1996).

Herris and Guten(1979)은 연령의 증가는 신체적으로 질병에 대한 경험도 많고, 폭로의 기회가 높으므로 보건교육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 태도의 형성과 실천에 이르는 정도가 높다

고 보고하였으며, 고 연령층이 건강관리의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형성과, 실천행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태도형성과 건강행위 실천도가 역시 유의미하게 높게 조사되었다(p<0.05). 이는 기혼자와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자아 존중감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건강인식도가 높아 건강행위가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Yoon, 1990 : Kang, 1992).

Table 4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degree about Health Manage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구분	N	지식 M ± SD	태도 M ± SD	실천행위 M ± SD
연령				
≤ 29	62	4.07±0.66	3.29±0.56**	3.43±0.58**
30 - 39	87	4.19±0.57	3.28±0.55	3.48±0.57
40 - 49	165	4.27±0.60	3.39±0.59	3.49±0.60
≥50	201	4.31±0.53	3.60±0.64	3.74±0.55
결혼상태				
미혼	169	4.15±0.64	3.20±0.52*	3.35±0.57*
기혼	347	4.24±0.57	3.41±0.60	3.54±0.59
종교				
없다	217	4.17±0.66	3.21±0.57*	3.42±0.62*
있다	298	4.25±0.53	3.44±0.59	3.63±0.58
학력				
≤중졸	73	4.24±0.60	3.88±0.61	3.40±0.65
고졸	279	4.19±0.56	3.37±0.56	3.02±0.73
≥대졸	164	4.24±0.63	3.32±0.61	3.44±0.60

\* : P < 0.05, \*\* : P < 0.01

3.3 건강관리의 지식, 태도, 실천행위의 승무적 특성

승선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행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선·기관장이 지식, 태도는 높은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없었으며, 실천행위에서는 타 직위보다 선기관장의 건강행위 실천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이 같은 결과는 직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가 잘 나타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선행연구(fugelli, 1980; Yoon, 1990)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고학력, 고연령대가 이 직급에 많이 분포하고 질병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예방적 건강실천 행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선박의 크기와 항해구역, 그리고 선박의 선령에 따른 승무원들의 건강관리 지식과 태도, 실천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승선경력에 따른 건강관리 조사결과 승선경력이 많을수록 지식과 태도, 실천행위가 높게 나타났으며(p<0.05), 근무시간이 길수록 건강관리 태도형성과 실천행위 낮게 조사되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이는 연장근로가 많은 선원이 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직무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결과로 사료된다. 선원들의 근무량은 변화가 심하고 근무 시간대가 불규칙하고, 주야교대작업 형태로 4시간씩 당직근무와 입출항시 노동시간의 증가 등으로 건강행위 실천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육상근로에서도 교대근무자의 건강행위 수행실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Yoon, 1990; Kim, 2004).

Table 5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degree about Health Management by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구분	N	지식 M ± SD	태도 M ± SD	실천행위 M ± SD
직위				
선·기관장	224	4.27±0.54	3.40±0.57	3.68±0.59**
해기사	257	4.18±0.62	3.30±0.59	3.32±0.57
부원	35	4.25±0.52	3.29±0.64	3.39±0.59
선박크기(톤)				
≤500	145	4.24±0.59	3.32±0.62	3.57±0.62
501-3000	115	4.15±0.60	3.31±0.53	3.44±0.56
3001-10000	109	4.28±0.62	3.40±0.63	3.51±0.59
≥10000	147	4.32±0.56	3.38±0.57	3.52±0.55
항해구역				
외항	287	4.19±0.59	3.39±0.56	3.46±0.55
내항	229	4.25±0.59	3.32±0.62	3.52±0.61
선령				
≤5	51	4.23±0.61	3.42±0.57	3.58±0.55
6-10	164	4.19±0.58	3.41±0.62	3.54±0.61
11-20	228	4.21±0.59	3.36±0.60	3.66±0.56
≥21	73	4.15±0.57	3.29±0.55	3.43±0.57
총승선경력				
≤5	77	4.02±0.72*	3.22±0.55*	3.41±0.58*
6 - 10	84	4.26±0.52	3.27±0.61	3.45±0.60
11 - 20	182	4.32±0.56	3.48±0.55	3.47±0.58
≥21	173	4.40±0.61	3.51±0.61	3.67±0.57
근무시간(주당)				
≤50	22	4.36±0.58	3.66±0.63*	3.64±0.62*
51-60	228	4.22±0.58	3.45±0.59	3.43±0.55
≥61	166	4.19±0.60	3.29±0.55	3.41±0.58

\* : P < 0.05 \*\* : P < 0.01

3.4 건강관리의 지식, 태도, 실천행위간의 관련성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행위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6)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r=0.36, p<0.05)와 실천행위(r=0.33, p<0.05)가 긍정적인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건강관리 행위도 잘 실천하는 순 상관관계(r=0.64, p<0.05)를 보였

다. 결과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건강관리 태도와 실천행위가 높으며, 또한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의 실천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선행연구(Kim, 1985 : Yoon, 1990; pender et al., 1990) 결과와 일치 하였으며, Kang(1992)은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 실행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Table 6 Corelations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degree about Health Management

구분	지식	태도	실천행위
지식	1.00	0.36*	0.33*
태도		1.00	0.64*
실천행위			1.00

\* : P < 0.05

3.5 건강관리 항목별 실천행위 상관성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리 실천행위 상호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실천행위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청결과 음식 0.49, 청결과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 0.22, 청결과 업무만족도 0.28, 청결과 안전사고예방 0.43, 청결과 건강한 환경조성 0.23이었고, 음식과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 0.49, 음식과 업무만족도 0.48, 음식과 안전사고예방 0.43, 음식과 건강한 환경조성 0.42이었으며,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과 관련한 상관 관계에서 업무만족도 0.49, 안전사고예방 0.30, 건강한 환경조성 0.33의 상관관계를 보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음주 및 흡연과 다른 실천 항목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규칙적 운동과 안전사고 예방은 0.20, 업무만족도와 안전사고 예방 0.59, 업무만족도와 건강한 환경조성 0.38, 안전사고예방과 건강한 환경조성과의 상관관계는 0.26을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7 Corelations among practice-degree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	1.00	0.49*	0.22*	0.07	0.17	0.28*	0.43*	0.23*
나		1.00	0.49*	-0.03	-0.03	0.48*	0.43*	0.42*
다			1.00	0.19	0.07	0.49*	0.30*	0.33*
라				1.00	0.05	-0.06	0.09	0.14
마					1.00	0.02	0.20*	-0.02
바						1.00	0.59*	0.38*
사							1.00	0.26*
아								1.00

\* : P < 0.05

가 : 청결, 나 : 음식, 다 :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  
 라 : 음주와 흡연 마 : 규칙적 운동, 바 : 업무만족도,  
 사 : 안전사고예방, 아 : 건강한 환경조성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원 재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선원들 가운데 최근 1개월 이내 승선경력에 있는 516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관련한 지식, 태도, 실천행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원들의 건강관련 지식 수준은 평균 4.24± 0.35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태도점수는 3.45±0.41, 예방행위 점수는 3.39± 0.22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2) 연령별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있어서는 각각 50세 이상에서 3.60점과 3.7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고 연령층이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형성과 실천행위가 높았다(p<0.01).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형성과, 실천행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5),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태도형성과 건강행위 실천도가 역시 유의미하게 높게 조사되었다(p<0.05).

3) 직위에 따른 건강관리 실천행위는 타 직위보다 선기관장의 건강관리 실천도가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승선경력에 따른 건강관리 조사결과 승선경력이 많을수록 지식과 태도, 실천행위가 높게 나타났으며(p<0.05), 근무시간이 길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실천행위 항목 모두에서 낮게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4)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행위간의 상관관계는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0.36, 지식과 실천행위와의 관계는 0.33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태도와 실천행위간의 관계는 0.64의 상관관계를 보여 건강관리 관련 요인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의 조사결과 선원들의 건강관리 지식과 태도, 실천행위는 순 상관관계가 강하므로 기초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인 건강교육을 통하여 지식수준을 높여 태도형성과 실천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ender et al.(1990)와 윤(1990)은 건강교육 실시방법이나 건강교육 효과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회사일수록 소속감이 높으며, 건강교육이 건강행위 실천도를 높여 질병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건강교육의 효과로 근로자의 56.7%가 건강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하며, 건강교육으로 인한 건강의식 향상은 관리자급에서 57.2%, 일반근로자는 58.7%의 건강의식 향상효과가 있었고, 질병예방의 효과도 관리자 58.5%, 일반근로자 62.4%가 건강교육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pender et al., 1990; Kim, 2004). 따라서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예방을 위해서 선원들 스스로 건강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차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회사와 정부, 관련단체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선원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의도된 변화를 이끌어내어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개인특성을 고려한 건강 교육과정 개발과 건강지침서, 동영상, 유인물 등의 다양한 교육매체의 개발과 건강관리 태도형성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선박승무원, 선박회사,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실천가능한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

며, 향후 선원들의 건강관리 개선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Fugelli, P.(1980), "Health problems in the fishing trade, In norwegian", foredrag ved I andsmote I Norges fiskarlag Trondheim, 9.
- [2] Ha, H. D. and Kim, J. H.(2001), "The Effects of Seaman's on Board Service Career on Physical Fitness Characteristics and Mental Fatigue",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25, No. 4, pp. 347-360.
- [3] Harris, D. M. and Guten, S.(1979), "Health protective behavior, o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0, pp. 17-29.
- [4] ILO / WHO.(1997), Guidelines for conducting pre-sea and periodic medical fitness examinations for seafarers, Geneva, ILO / WHO.
- [5] ILO.(1996), Drug and Alcohol Prevention Programmes in the Maritime Industry, ILO.
- [6] ILO.(2006),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ILO.
- [7] Im, J. G.(1994),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Seafarers", Ph.D. dissertation. Korea Maritime University.
- [8] IMO/WHO.(1998), "International Medical Care for Ship".
- [9] Jeon, S. H.(2006), "Research on the Sick and Wounded of Seafarers and Medical Support System", Conference Proceedings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pp. 13-18.
- [10] Kang, G. A.(1992), "The Related Factors o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Prim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11] Ki, K. S.(1985). "A Study on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having Affect on Junior Highschool Boys' Practice of Health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5, No. 1, pp. 59-75.
- [12] Kim, G. B. and Jeon, E. Y.(1996), "The Impact of Perceived Health Condition and Practiced Health Promotion Life Style on the Satisfaction of Life in Adul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10, No. 3, pp. 548-558.
- [13] Kim, J. H.(198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tective Behavior and Health Locus of Contro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5, No. 2, pp. 49-60.
- [14] Kim, Y. M.(2004). "Predictive Factor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Industrial Shift Workers", Journal of Korean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1, No. 1, pp. 13-30.
- [15] Ko, C. D. and Kim S. H.(2003), "Evalua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s on Board in term of Noise and Vibration in Coastal Small-sized Ships",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27, No. 1, pp. 25-29.
- [16] Lee, S. H and Jeon, S. H.(2006), "Analysis of the Law and System for Crew's Occupational Illness",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0, No. 5, pp. 421-426.
- [17]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04), Guidelines for National Health Life.
- [18] Oh, J. J., Kim, S. M, and Song, M. S.(1996),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Factors Contributing Health Practice of Korean Urban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8, No. 2, pp. 324-336.
- [19] Park, N. Y.(1992), Health Education, Seoul, Seomun Press.
- [20] Pender, N. J. et al.(1990), "Predicting Health-Promoting Lifestyles in the Workplace", Nursing Research, Vol. 39, No. 6, pp. 326-331.
- [21] Seo, Y. S. and Kim, J. H.(2005).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ress Perception and Ways to Cope with Stress for Seafarers",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29, No. 1, pp. 35-42.
- [22] Yoon, J.(1990), "A Study on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Industrial Workers", Conference Proceedings of Jesus University, Vol. 7, No. 1, pp. 73-97.

---

원고접수일 : 2012년 10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2월 04일

원고채택일 : 2012년 12월 07일